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1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b>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li> <li>●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나이다.</li> <li>○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얼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주소서.</li> <li>●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li> <li>◎ 아멘.</li> </ul>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4	이 마틸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5/1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8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15	유 요한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22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17	\$272.00	\$86.00	\$360.00

\*사순회생봉헌금: \$ 20.00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용숙 안젤라 음악평론가

독일에 간 첫해에 저를 가장 매혹한 것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바로 독일 낭만주의와 그림 동화를 탄생시킨 신비롭고 비밀에 찬 숲들입니다. 집 동네를 나서서 10분만 걸으면 프랑크푸르트 외곽 타우누스 산의 고즈넉한 숲이 펼쳐 졌습니다. 대학에서 강의가 없는 날은 혼자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온종일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내려앉은 햇살이 어쩌나 평온하던지,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서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들지 않았습 니다. 지금 생각하니 겁없이 아찔한 짓을 한 셈이지만요.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정하고 첫 면담을 할 때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독일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냐고요. 지체 없이 '숲'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국에는 숲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럴리가요.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지인 나라인데요.

왜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숲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국내에서 여행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숲에 감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과 긴장이 크고 마음이 답답했던 시절에 고교 시절과 대학을 거쳤고, 방학이 되면 농촌활동을 하러 가거나 가톨릭 학생회에서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 다.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간다'라는 의미의 자유로운 여행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 다. 이 시기에 저를 사로잡은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8 장 32 절'에 들어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였습니 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처럼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거라고 믿었고,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고 온종일 코를 책에 박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공 동 체 소 식

한인공동체 성당 청소: 4/30 (토) 오후 3 시

4 월 30 일 토요일 오후 3 시에 한인공동체에서 본당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느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가꾸고, 또한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월 '성모의 밤' 전례: 5/2 (월) 오후 6 시 30 분

4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주일인, 오늘 4 월 17 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5 월 성체조배: 5/5 (목) 오후 6 시 30 분

5 월 성체조배는 첫 목요일인, 5 월 5 일 '6 시 저녁미사' 이후에 바로 있습니다. 성체조배에 참여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봄 하마йка 축제: 5/15 (주일)

산클레멘테 본당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마йка 축제가 오는 5 월 15 일 (주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 음료수, 스폰, 접시 등을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 당일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세월이 더 지난 뒤에야 오해하고 있던 이 성경 구절의 맥락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 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 니 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고,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규범을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요한 8,37) 예수님은 또 이렇게 탄식 하십니다.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를 우리가 온갖 지식과 욕망과 허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려면 우선 본질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숲 속의 빈터처럼 햇살을 받아들일 고요한 공간을 제 안에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서울주보에서>

가톨릭은 마리아교인가요?

가톨릭의 성모신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며, 하느님 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 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이 공경하신 분이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